

문화산책

장경화

광주문화재단 이사



6·3 지방선거는 단순히 행정 책임자를 선출하는 의미...

문화와 예술은 시간과 돈을 속주로 서서히 성장하는...

전남과 광주가 평화와 인권, 혹은 전통과 생태의 가치...

기고

채덕현

광주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장



최근 우리 일상의 편리함을 책임지는 수많은 기기들이...

지난달 24일 오전 광주 동구 계림동의 한 주택에서 119...

이보다 앞선 지난달 18일 오전 광주 남구 월산동의 빌라...

지방선거의 문화예술 공약, 미래의 자화상

-젊은 예술인을 지켜야 할 이유

산업으로 관광, 콘텐츠 산업 등은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문화예술 공약은 시민과 예술인 모두의 전반적인 삶의...

결국 좋은 문화정책은 특정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은 어느 때보다도 전남·광주 예술생태계를 튼튼하

게 만드는 공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주변에 많은...

어느 40, 50대의 일부 화가는 "결혼은 두려운 사치"...

하드웨어 문화예술 공약도 좋지만 문화예술계를 지탱...

결국 지방선거에 '누가 당선되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의 문화예술 공약을 어...

배터리 화재, 알고 대비하면 막을 수 있다

이 발생하며 순식간에 불이 번졌다. 이 화재로 같은 가구...

두 사고의 공통점은 하나다. '충전 중인 배터리'가 불씨...

배터리 화재의 핵심 위험은 '열폭주(Thermal Runaway)'

전기전자제품과 전기 스키어의 배터리는 특히 주의가 필...

이처럼 배터리 화재는 이제 우리 일상 어느 공간에서나...

예방은 어렵지 않다. 충전은 반드시 제조사 인증 충전...

전국적으로 배터리 화재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

배터리 화재는 단순히 기기의 결함이라는 기술적인 문...

작은 주의와 올바른 습관 하나가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독자투고

폭설이 남긴 포트홀 주의 운전하자

지난 겨울 한파와 폭설이 크고 작은 생체기를 남기면서...

포트홀은 주로 폭설이나 폭우로 인해 도로 표면 일부가...

폭설 당시 제설작업에 사용된 염화칼슘 및 소금 등 제...

인력과 재정적인 여건, 수많은 아스팔트 도로 포트홀...

수술 필요도 있다. 운전자 또한 평소 포트홀이 자주 발생...

사설

'강진 반값여행'은 계속되어야 한다

'강진 반값여행'이 시행 3년 만에 국가정책에 반영돼 전...

이 사업은 여행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이는 지난 2024년 강진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반값여행'...

강진군은 당시 지방소멸위기와 지역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우선 온라인 쇼핑물 매출이 시행 전보다 큰 폭으로 증가...

특히 강진군 직거래 쇼핑몰인 '초록믿음강진'의 신장세는...

이는 반값여행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얼마...

또 전국에서 앞다퉈 강진을 방문해, 방문 인구가 2024년...

대통령의 언급으로 주목받아 '지역사랑 휴가지원'이라는...

독서·공연 보는 도서관 '책정원' 인기비결

광주 동구 구립도서관 '책정원'이 눈에 띈다. 단순한 독서...

2023년 12월 개관한 책정원은 2024년 16만3457명, 지...

대출권수도 2024년 14만3570권, 2025년 14만421권...

개관한 지 얼마 안됐지만 안정적인 이용률과 높은 대출 실...

여기에는 그냥 책이 있는 공간을 떠올리는 일반적인 도...

실제로 유아·어린이 중심 공간인 1층에는 굿즈와 브런치...

무엇보다 다른 도서관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은 '백미'였...

지난해 '붓글씨로 쓰는 수채캘리', '어린이 토론 교실',...

이제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문화와 사람이 어우러지는...

이러한 책정원의 하이브리드급 진화가 앞으로도 시민들이...

취재수첩

60일 재수색... 국가 신뢰 회복의 시간

임영진

사회부 차장



무안국제공항 일대에서 유해 재수색이 다시 시작된다.

지난 12·29 제주항공 참사 이후 1년 4개월이라는...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번 재수색은 기존과 다르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그래서 어디를 어떻게 왜 다시 수색하는지에 대한...

특히 이번 60일이라는 시간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

유가족의 요구는 단순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

이번 60일간의 재조사는 단순한 '수색 작업'이 아...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간)
본지는 드림투데이와 기사 제휴를 체결합니다. 기사 이메일 도메인으로 광남일보 (gwangnam.co.kr)와 드림투데이(gjdream.com) 소속 매체를 구분합니다.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